

무시하라고 지시된 정보가 판단에 미치는 효과 : 연상모형의 검증*

고 재 흥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무시하라고 지시된 행동정보가 표적인물의 특성 판단과 호감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뤄졌다. 2개의 관련된 실험을 통해 무시하라고 지시된 정보는 과제심태와 무시하라는 지시의 위치에 따라 판단에 다른 영향을 주었다. 즉 인상형성 지시조건에서는 전반 무시조건에 비해 후반 무시조건이 무시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표적인물에 관한 판단에서 그 정보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기억 지시조건에서는 이러한 위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들은 대인기억의 연상모형으로 설명되었고 부가적으로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의 회상량 분석이 이뤄졌다. 실험 2에서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의 회상량은 대인기억의 연상모형(Wyer & Srull, 1984) 예언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전반 무시조건에 비해 후반 무시조건에 비해 무시하라고 지시한 행동정보를 더 잘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들을 판단-기억간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주장들과 관련하여 논의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혹은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를 무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법정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연구들은 무시해야하는(신빙성이 없어서) 진술이나 증거가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예: Carretta & Moreland, 1983; Sue, Smith, & Caldwell, 1973). 이러한 현상은 매우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난 후 나중에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잘못된 정보를 기억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하지만 그 정보들은 여전히 기억속에 남아 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실험은 이와 같이 무시된 정보(disregarded in-

* 이 연구는 차재호 선생님과 서울대 사회심리 세미나 참석자들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여러분의 많은 지적에 감사드린다. 자료수집을 도와준 경남대 정유선, 강학수, 강정화께도 감사드린다.

formation)가 판단과 회상에 미치는 효과를 내인기억에 관련된 연구결과들과 관련지어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이뤄졌다.

최근의 내인기억연구 방법중 하나는 두 집단에게 각기 다른 실험지시를 한 후 표적인물(혹은 표적집단)에 관한 정보들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두집단의 회상량을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집단에게 제시되는 행동정보들을 이용하여 표적인물(target person)의 인상을 형성하도록 지시하고 (인상형성조건), 다른 한 집단에게는 제시되는 행동정보들을 암기하도록 지시한다(기억조건). 그런 다음 두 집단의 피험자에게 모두 실험자가 제시한 표적인물에 관한 행동정보들을 회상하도록 한다(예: Hamilton, Katz, & Leirer, 1980; Srull, 1981). 이런 절차를 사용한 여러 연구에서 두집단의 회상량을 비교한 결과, 대체로 인상형성조건이 기억조건에 비해 회상이 우월하게 나타났다(예: Srull, 1981, 1984). 이런 실험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표적인물의 인상형성에 개입되는 인지과정에 관한 연구들(Hastie, Park, & Weber, 1984 참조)은 통상 다음과 같이 결론내리고 있다.

첫째, 인상형성 조건의 피험자들은 표적인물의 추상적 표상(abstract representation)을 만들기 위해서 제시되는 행동정보들을 특성(trait)개념으로 조직화 한다. 이러한 특성개념은 이후에 회상과제가 주어졌을 때 세부적인 행동정보들의 인출단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상형성 지시를 받은 피험자들이 기억지시를 받은 피험자들보다 행동정보의 회상이 우수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Srull, 1981; Srull, Lichtenstein, & Rothbart, 1985). 이때 형성되는 행동-특성과 행동들간의 기억연결을 “연결망(network)”이라 한다.

둘째, 표적인물의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 피험자들은 제시되는 정보들의 평가치를 추출하여 이것들의 평균치로서 그의 대표값을 형성하게 된다(Wyer & Gordon, 1982).

셋째, 통상 내인기억에 관한 실험에서 정보들이 계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인상형성을 목표로 하는 피험자들이 제시되는 각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상과 정보들 간의 연결 뿐 아니라 정보들간의 연상적 연결(associative linkage)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연상적 연결은 이 후에 정보를 인출해 내는 유용한 통로가 된다(Hastie, 1980; Srull, 1981, 1984; Srull 등, 1985). 그러나 단순히 정보를 기억해야 하는 목표를 지닌 피험자들은 제시되는 정보들을 서로 독립적인 형태로 기억속에 저장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상과 정보들 간의 연결은 생성되지 않는다.

이상의 연구결과들로서 Wyer 와 Srull (1984)은 사회적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연상모형(the association model)을 정립했다. 이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들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정보의 처리는 근본적으로 하향(top-down) 형식으로 이뤄진다.
- 2) 장기기억속에서 정보들은 행동-특성군(cluster)과 정보들의 평균 평가치로 이뤄진 추상적 표상으로 나뉘어져 각기 다른 bin 에 저장된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어느 하나가 서로 독립적으로 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2개의 bins 은 같은 표적인물 범주속에 포함되어 있다.
- 3) 만약 특정 표적인물의 bins 이 형성된 이후에 주어지는 후속 정보들은 자동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bin 으로 통합된다.
- 4) 일단 bin 이 형성되면 그 내용들(평균 평가치, 정보의미들)은 장기기억속에 영구히 저장되고 의도적으로 선별하여 소거할 수 없다.

실 험 1

무시된 정보가 표적인물에 대한 판단과 기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요인 중의 하나가 피험자들이 그 정보(들)를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이다. 즉 표적인물의 인상형성이 끝난 상황에서 특정 정보들을 무시해야 하는 경우 그 정보들을 표적인물에 관한 정보들의 연결망 속에서 분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판단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즉 인상형성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들로부터 하나의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은 각각의 정보들을 그 의미 뿐만 아니라 평가치를 서로 비교하여 이해하려고 하고 이러한 이해과정에서 정보들간에 연상적 연결이 형성되기 때문이다(Wyer, Srull, & Gordon, 1984). 그러나 표적인물의 인상이 형성되기 이전에 특정정보들을 무시해야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그에 관해 얻은 정보만으로 이뤄진 행동-특성군을 구성하여 하나의 bin 에 저장하고 그 이후에 얻은 정보만으로는 별개의 행동-특성군을 형성할 수 있다.

Wyer 와 Unverzagt (1985)는 피험자에게 표적인물의 인상을 형성하도록 지시하고 총 19개의 행동정보를 차례로 제시하였다. 한집단에게는 처음 5개의 행동을 제시한 후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무시하라"고 지시한 다음 그 이후의 행동들만으로 인상을 형성하도록 했다(전반 무시조건). 다른 한 집단에게는 19개의 행동들을 모두 제시한 후 뒤에서 5번째 이후의 행동정보들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후반 무시조건). 그 결과 전반 무시조건에서는 무시된 정보가 표적인물의 특성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후반 무시조건에서는 무시된 정보가 표적인물의 특성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무시된 정보의 회상에서도 후반 무시조건에서는 무시된 정보를 잘 회상하지 못했으나 전반 무시조건에서는 무시된 정보를 잘 회상했다(Wyer & Unverzagt, 1985).

무시된 정보가 표적인물에 대한 판단과 기억에 미치는 효과를 대인기억의 연

상모형(Hastie, 1980)과 관련지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험자의 정보처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무시된 정보가 판단과 기억에 미치는 효과가 그 정보를 무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각하게 되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정보들을 하나의 통합된 추상적 구조로 조직화하려고 노력할 때 높게 된다. 즉 가용한 정보들로서 표적인물의 인상을 형성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보처리 방식에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특성-행동 간 혹은 행동정보들간에 연상적 연결이 생기는 이유는 정보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즉 부호화 단계에서, 보다 정교한 정보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Bargh & Thein, 1985). 예를 들어 정보를 통합할 필요가 없는 기억지시 조건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기억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특성-행동군이나 정보들 간의 연상적 연결이 형성되지 않고 언어적 재료(예: 무의미 절차)의 기억 방식과 같이 정보들이 각각 별개로 처리되어 저장된다는 증거가 있다(Srull, 1984). 실험 1에서는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의 가능성을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와 과제 심태(task set)를 조작하여 검증하려 했다.

(1)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

이 실험에서도 Srull 등의 연구(1985)와 같이 2가지 무시조건이 있다. 즉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를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했다. 전반 무시조건은, “불친절한” 행동들(4개) 제시-“지금까지의 행동들을 무시하라”고 지시-“중립적” 행동들(11개) 제시-“정직한” 행동들(4개) 제시의 순서이다. 후반 무시조건은, “정직한” 행동들(4개) 제시-“중립적” 행동들(11개) 제시-“불친절한” 행동들(4개) 제시-“뒤에서부터 4개의 행동들을 무시하라”는 지시의 순서이다.

(2) 과제 심태(task set)

과제 심태는 인상형성자세와 기억자세 조건으로 구분했다. 인상형성조건에서는 피험자들에게 행동정보들이 제시되기 전에 “제시되는 정보들로서 표적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마음속에 그려 보도록” 지시했다. 기억조건에서는 피험자들에게 행동정보들이 제시되기 전에 “제시되는 정보들을 암기하라”고 지시했다.

1. 무시된 정보가 특정판단에 미치는 효과

인상형성조건에서 표적인물에 관한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들을 무시해야 하는 경우는, 즉 전반무시의 경우는, 그 정보들로서 그에 대한 특성-행동군을 형성한다. 피험자들은 무시하라는 지시 이후에 주어진 정보들만으로 표적인물에 대한 또 다른 특성-행동군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표적인물에 관한 2개의 특성-행동군이 각각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중 어

는 하나의 판단이 요구될 때는 나머지 하나의 간섭없이 인출되어 판단에 이용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이미 제시되었고 그 정보들로서 하나의 연결망이 완성된 이후에 특정 정보들을 무시해야 하는 경우는, 즉 후반무시의 경우는, 무시해야 하는 정보들을 연결망으로부터 분리하여 또 다른 특성-행동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인상을 형성하려는 목표 때문에 정보의 이해과정에서 무시정보들이 연결망 속에 존재하는 기존의 다른 정보들과 연상적 연결을 형성하게 되어 이 정보들을 다른 정보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표적인물의 특성 추론에서 부분적으로는 무시된 정보의 함축적 의미가 혼입(confounding)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험자들의 정보처리 자세가 정보들의 통합적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억조건에서는 이상과 같은 특성-행동군이나 정보들 간의 연상적 연결이 없다.¹⁾ 그러므로 기억조건에서는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가 표적인물의 특성추론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정보를 기억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을 때는 정보들을 각기 독립된 형태로 저장하게 되고 “무시하라”는 지시에 의해 행동정보들을 무시해야 하는 항목들과 나머지 항목들로 비교적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만약 특성 판단이 요구되면 독립적으로 저장된 정보들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인상을 근거로 하여 무시된 정보가 특성 판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할 수 있다.

예언 1: 특성 판단에서 기억조건에서는 인상형성조건에 비해 무시된 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즉 기억조건의 피험자들이 인상형성조건의 피험자들에 비해 표적인물이 “친절한” 특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예언 2: 인상형성조건에서는, 무시된 정보가 표적인물의 특성 판단에 미치는 효과가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즉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가 전반일 때의 피험자들 보다는 후반일 때의 피험자들이 표적인물을 덜 “친절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무시해야 하는 정보가 “불친절한” 정보일 때). 그러나 기억조건에서는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에 따라 표적인물의 특성판단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1) Winter 와 Uleman(1984)은 사회적 정보(특히 행동정보)는 “기억하라”고 지시한 경우에도 특성으로 추론되고 이 과정은 자동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상형성지시와 기억지시 간에 정보처리 양식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 된다.

2. 무시된 정보가 호감도(likableness)에 미치는 효과

피험자들이 표적인물의 호감에 대한 추정을 하게 되는 과정도 특성판단과정과 유사할 것이다. 즉 표적인물에 대한 호감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은 표적인물의 추상적 표상을 탐색하게 될 것이다. 추상적 표상이란 주로 평가차원 상의 어떤 값으로 이뤄지고 원래의 정보들과는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세부적인 정보와는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인출된다(Wyer, Srull, & Gordon, 1984). 또한 인상형성조건과 같이 이미 표적인물에 대한 평가치를 저장하는 bin 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표적인물에 관한 후속적인 정보들의 평가치가 이미 형성된 bin 속으로 첨가된다. 그러므로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가 전반이든 후반이든 간에 모든 정보들의 평가치는 같이 합산된다. 이와 같이 인상형성조건인 경우 정보의 획득 초기에 인상 bin (예: “김영수”라는 사람)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정보가 같은 사람의 정보일 때(예: “김영수는 동생을 때렸다”)는 그 정보들을 “김영수”라는 표적인물의 bin 속에 포함시켜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조건에서는 정보가 개별적으로 기억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무시해야 하는 정보와 나머지 정보를 비교적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갑자기 표적인물의 호감도 판단이 요구되면 무시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만으로서 평균 평가치를 산출하게 된다. 만약 이 실험에서와 같이 무시해야 하는 정보가 평가적으로 부적(-)인 경우는 인상형성조건이 기억조건에 비해 표적인물의 호감도를 부적으로 평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상형성조건에서는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평가치가 포함된 평정값이 될 것이고 기억조건에서는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평가치가 제외된 평정값이 산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실험에서는 이상의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다.

예언 3: 호감도 평정에서 인상형성조건인 피험자들이 기억조건인 피험자들보다 표적인물을 부적으로 평정할 것이다.

예언 4: 인상형성조건과 기억조건 모두에서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는 호감도 평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3. 무시된 정보의 회상

피험자들에게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들을 회상하게 했을 때 이 정보들이 회상될 확률은 부분적으로 이 정보들의 인출단서 수와 관련되어 있다. 대인기억 연구에서 표적인물에 관한 세부정보의 인출과정은 통상 하향적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Srull, 1981). 그러므로 표적인물의 특성이 세부적인 정보의 인출단서 역할을 한다. 이때 제시된 정보 수가 일정하다면, 자유회상에서 하나의 인출단서에 연결된 세부정보(혹은 exemplars)의 수가 적을 수록, 즉 인

출단서가 많을 수록, 정보의 인출확률은 높다. 반대로 하나의 인출단서에 많은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들 서로 간섭을 일으키게 되어 개개 정보의 인출확률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Tulving & Pearlstone, 1966).

인상형성조건에서는 특성-행동간 연결이 이뤄지기 때문에(Hamilton 등, 1980) 혹은 정보들간에 연상적 연결이 이뤄지기 때문에(Srull, 1981, 1984) 기억조건 보다 세부정보의 회상이 우수하다. 또한 인상형성조건에서는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가 전반인 경우는 독립적인 2개의 특성-행동군을 만들 수 있다. Wyer 와 Srull(1984)에 따르면 이경우 2개의 bins(무시하라는 정보들의 bin 과 나머지 정보들의 bin)은 쉽게 구분된다. 그러므로 무시하라고 지시받은 정보를 회상해야 할 때는 비교적 쉽게 무시된 정보들이 있는 bin 속에서 그 정보들을 찾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가 후반인 경우는 하나의 특성-행동군에 이미 모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시된 정보만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인출단서 아래 모든 정보가 포함된 셈이 된다.

기억조건에서는 정보들간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정된다면, 무시된 정보의 회상결과는 언어적 재료의 자유회상(free recall) 결과 형태와 유사할 것이다. 즉 계열위치효과(serial position effect)가 나타날 것이다. 과제가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들의 회상이기 때문에,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가 후반인 조건(무시된 정보들이 가장 최근에 부호화된 조건)이 전반인 조건에 비해 그 정보들의 회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이 실험에서는 행동정보들의 제시 직 후 판단과제와 회상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억조건에서 이러한 자유회상의 최근효과(recency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상형성조건의 피험자들은 정보의 암기보다는 이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보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보들과 연결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열위치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

예언 5: 인상형성조건에서는, 전반무시조건이 후반무시조건 보다 무시하라고 지시된 정보들을 더 잘 회상할 것이다.

예언 6: 기억조건에서는, 무시된 정보의 회상에서 최근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즉 후반 무시조건이 전반 무시조건에 비해 무시하라고 지시된 정보들을 더 잘 회상할 것이다.

방법 및 절차

피험자 실험에 참석한 피험자는 경남대학교에 재학중이며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년과 2학년 학생 63명이었다.

재료 본 실험에서는 Wyer와 Unverzagt(1985)의 실험에 사용된 19개의 행동진술문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중 4개는 정적인 문항(“정직한” 행동들), 4개는 부정적인 문항(“불친절한” 행동들), 그리고 11개는 어떤 분명한 인상을 전달해 주지 않는 중립적인 문항이었다. 각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정직한 행동들

- 교통위반 딱지를 떼는 경찰에게 뇌물을 주지 않는다.
- 일에 대한 실수를 나무라면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 음식점에서 더 많은 거스름 돈을 받았을 때 카운터에게 얘기한다.
- 5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었을 때 주인을 찾아 주었다.

불친절한 행동들

- 조수를 괴롭히고 꾸짖는다.
- 돈에 관해서 논쟁하는 동안 아내를 때린다.
- 무능한 사람을 놀림감으로 삼는다.
- 자기집을 방문한 세일즈맨을 모욕한다.

중립적인 행동들

-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를 더해서 돈을 모아둔다.
-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간다.
- 복잡한 서류체계를 설계한다.
- 사(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친구에게 충고를 부탁한다.
- 어린이 앞에서 나쁜 언어를 사용한다.
- 약속을 잘 지킨다.
- 자신의 신체적 외관에 관심을 갖는다.
- 감명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승복한다.
- 시(市)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
- 매일 운동을 한다.
- 비싼 식당에서 식사했다.

절차 피험자들은 한명씩 실험에 참석했다. 각 피험자는 4조건에 무선배정되었다. 먼저 피험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문을 읽어주었다. 인상형성 조건에서는, “실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사회 심리학의 한 분야인 인상형성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이 주어진 정보로서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는가를 알

아 보려는 것입니다. 이제 “김인호”라는 가상적 인물이 행한 행동들을 읽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김인호”가 어떤 사람인지를 머리 속에 그려 보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당신에게 그의 인상에 관해 몇 가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기억조건에서는 “실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구는 사회심리학의 한 분야인 대인기억에 관한 것으로 사람들이 주어진 정보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를 알아 보려는 것입니다. 이제 “김인호”라는 가상적 인물이 행한 행동들을 읽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행동들을 최대한 정확히 그리고 많이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당신은 기억에 관한 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시문을 읽어 준 다음 테이블에 있는 일련의 카드중 한 셋트를 집어 내고 첫번째 카드부터 하나씩 6초 간격을 두고 읽기 시작했다. 각 조건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반무시조건 : 이 조건에서는 첫번째 카드로부터 4 개를 읽은 후 갑자기 멈추고 피험자에게 “제가 카드셋트를 잘못 집어서 다른 셋트를 당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은 것들은 무시하십시오”라고 실수를 알리고 사죄했다. 그런 다음 다른 카드셋트를 집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남아있는 15 개의 행동들을 읽어 주었다.

후반무시조건 : 이 조건에서는 19 개의 행동들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 읽은 다음 실수했음을 알렸다. “제가 실수를 하여 잘못된 카드 4 개를 더 읽어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읽어드린 카드에서 뒤에서 4 개의 행동은 무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했다.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모두 3 가지였다. 즉 표적인물의 호감도 평정치, 특성평가지, 그리고 정보의 회상이었다. (1) 지시와 행동정보의 제시가 모두 끝난 후 피험자에게 표적인물인 “김인호”에 대한 호감도를 11점 척도(매우 싫은 사람-매우 좋은 사람) 상에 평정하게 하였다. (2) “김인호”에 대한 친절성을 11점 척도(전혀없다-매우 많다) 상에 평정하게 하였다. (3) 그런 다음 제공된 행동정보를 기억(회상)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모든조건의 피험자들에게 무시하라고 했던 정보까지 다 회상하라고 기시했다. 이것으로 모든 실험절차가 끝나고 피험자에게 실험참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실험은 종료되었다.

결 과

실험 1에 참석한 63명의 피험자중 사후해명에서 실험적 조작을 의심했다고 진술한 3명(인상형성-후반무시조건 3명과 기억-후반무시조건 1명)은 자료처리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60명의 특성판단, 호감도 판단, 그리고 정보의 회상량을 조건별로 분석했다.

1. 무시된 정보가 특성판단에 미치는 효과

무시된 정보가 표적인물의 친절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표적인물의 “친절성”을 11점 척도(전혀 없다-매우 많다) 상에서 표시하도록 하여 이를 각 조건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가 <표 1> 과 <표 2>에 나와 있다.

<표 1> 각 조건별 친절성 평정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지시 \ 위치	전 반	후 반	전 체
기 역	0.53* (2.53)	0.47 (2.77)	0.50 (2.57)
인상형성	0.53 (1.77)	-2.00 (1.81)	-0.73 (2.14)
전 체	0.53 (2.11)	-0.77 (2.58)	

* 수치는 표적인물의 친절성을 전혀 없다(-5)~매우 많다(+5)의 척도상에서 평정한 것임. n=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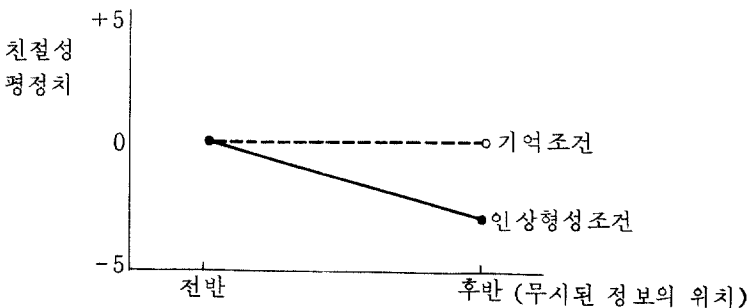
<표 2> 각 조건별 표적인물의 친절성 평정치 변량분석 요약표

변 량 원	자 승 화	자 유 도	평균자승화	F
지시(A)	22.82	1	22.82	4.45*
위치(B)	25.35	1	25.35	4.94*
A × B	22.82	1	22.82	4.45*
오 차	287.20	56	5.13	
전 체	358.19	59		

* $p < .05$.

<표 2>에서 보 듯, 예언 1과 예언 2에 관련된 지시와 무시된 정보의 위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F=4.45$, $df=1 / 59$, $p < .05$).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이를 각 조건별로 비교하기 위해 다시 단순 주효과 검증을 했다. [그림 1]



(그림 1) 지시와 위치에 따른 표적인물의 친절성 평정치

에서 보듯 인상형성조건에서는 전반무시조건($M=0.53$) 보다는 후반무시조건($M=-2.0$)이 표적인물을 불친절한 것으로 평정했다($F=9.38, df=1/56, p<.01$). 이는 예언 1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억조건에서는 무시된 정보의 위치에 따른 친절성 평정에서 차이가 없었다($F<1, n.s.$). 이 결과 역시 예언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2. 무시된 정보가 호감도 판단에 미치는 효과

무시된 정보가 표적인물의 호감도 평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피험자의 표적인물에 대한 호감도 평정치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표 3> 각 조건별 호감도 평정치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지시 \ 위치	전 반	후 반	전 체
기 역	*0.87(2.85)	1.20(2.37)	1.03(2.54)
인상형성	1.47(1.46)	-0.47(2.2)	0.50(2.05)
전 체	1.17(2.20)	0.37(2.36)	

* 수치는 표적인물을 매우 싫은 사람(-5) ~ 매우 좋은 사람(+5) 척도상에서 평정한 것임.

예언 3과 예언 4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한 결과, 지시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F<1, n.s.$). 이는 표적인물의 호감도 평정치가 인상형성조건($M=0.50$)과 기억조건($M=1.03$)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예언 3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지시와 위치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F=3.37, df=1/56, p>.05$). 이는 기억조건과 인상형성조건 모두에서 무시된 정보의 위치에 따른 호감도 평정치가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후검증에서 인상형성조건인 경우 전반 무시조건($M=1.47$)이 후반 무시조건($M=-0.47$)에 비해 표적인물을 긍정적으로 평정했다($t=2.84, df=28, p<.01$). 이는 예언 4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3. 무시된 정보의 회상

각 조건별로 피험자들이 “무시하라”고 지시된 행동정보들을 얼마나 잘 회상하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해 피험자가 회상한 행동들중에서 “불친절한” 행동들(4개)만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표 4>와 <표 5>에 나와 있다.

<표 5>에서 보듯 지시와 무시된 정보의 위치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F=12.56, df=1/56, p<.01$).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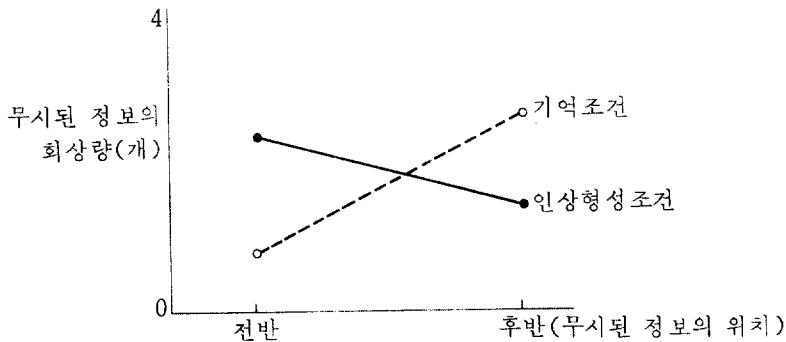
〈표 4〉 각 조건별 무시된 정보의 회상량 평균(괄호안은 표준편차)

지시 \ 위치	전 반	후 반	전 체
기 역	0.80(0.86)	2.00(1.07)	1.40(1.11)
인상형성	1.73(1.28)	1.07(0.80)	1.40(1.10)
전 체	1.27(1.15)	1.53(1.02)	

〈표 5〉 각 조건별 무시된 정보의 회상량 변량분석 요약표

변 량 원	자 승 화	자 유 도	평균자승화	F
지시(A)	0.01	1	0.01	—
위치(B)	1.07	1	1.07	1.03
A × B	13.07	1	13.07	12.56**
오 차	58.27	56	1.04	
전 체	72.42	59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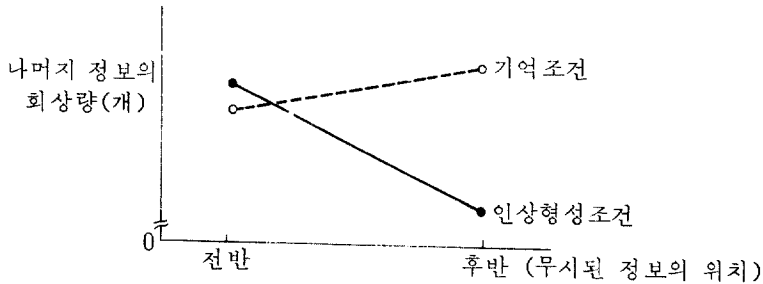


(그림 2) 지시와 위치에 따른 무시된 정보의 회상량

지시×위치의 상호작용 효과를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검증을 했다. 그 결과 [그림 2]에서 보듯 인상형성조건에서는, 전반무시조건($M = 1.73$)이 후반무시조건($M = 1.07$) 보다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를 더 많이 회상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F = 3.21, df = 1/56, p < .10$). 이는 예언 5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그 경향성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기억조건에서는, 후반무시조건($M = 2.0$)이 전반무시조건($M = 0.80$)에 비해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를 더 많이 회상했다($F = 10.80, df = 1/56, p < .01$). 이는 후반무시조건에서 회상의 최근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언 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예언 5의 결과가 경향성만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무시

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의 회상량을 비교했다. 인상형성에서 후반무시조건이 전반무시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섭이 크다면 이러한 간섭은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의 경우 뿐 아니라 나머지 정보의 인출에도 같은 효과를 줄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 이외의 나머지 정보회상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시 × 위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F = 8.76, df = 1/56, p < .01$).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 지시와 위치에 따른 나머지 정보의 회상량

[그림 3]에서 보듯 인상형성조건에서, 전반무시조건($M = 5.60$)이 후반무시조건($M = 3.33$)보다 나머지 정보의 회상량이 많았다($F = 11.47, df = 1/56, p < .01$). 이 결과는 예언 5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논 의

피험자에게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가 표적인물에 대한 판단과 정보의 회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설명은 주로 Wyer 와 Srull (1984)이 제안한 사회적 정보처리 모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실험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첫째로 표적인물의 특성판단에서, 인상형성조건의 후반무시조건 피험자들은 무시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무시된 정보가 포함된 것과 같이 평정했다. 그러나 기억지시를 받은 조건의 피험자들은 전반무시와 후반무시조건에 따라 무시된 정보가 특성판단에 각기 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로 표적인물의 호감도판단에서, 인상형성조건과 기억조건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실험의 예언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무시하라고 지시한 위치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지시와 위치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인상형성조건내에서는 전반무시조건과 후반무시조건간의 호감도 평정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도 역시 예언과는 다른 결과이다. 셋째로 무시된 정보의 회상에서, 인상형성조건내에서 전반무시와 후반무시조건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예언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즉 전반무시조건이 후반무시조건에 비해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들을 더 잘 기억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 예언은 사실상 지지받지 못했다. 그러나 무시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회상을, 비교한 분석에서 예상했던 결과를 얻었다. 만약 인상형성 조건에서 후반무시조건의 경우, 무시된 정보가 기억 연결망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다른 정보들의 인출에도 간섭을 줄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결과는 무시된 정보의 회상량분석에서 지지받지 못한 예언을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기억조건에서는, 특히 후반무시조건의 경우, 자유회상연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친근성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정보처리에 관한 모형(예: Hastie, 1980)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서 사회적 정보의 처리방식은 정보들을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조각난 정보들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헌상에서 사회적 정보처리에 관한 대표적인 패러다임은 역시 인상형성연구이다. 이 실험에서는 하나의 통제 조건으로 기억조건을 첨가하여 제시되는 정보들을 단순히 기억(ro-te memory)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후의 연구에서 정보제시 후 회상과제가 주어지기 직전에 간섭과제(distracting task)를 삽입하게 되면 이 효과는 없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실험은 Wyer 와 Unverzagt(1985)의 연구에 대한 체계적 반복실험(systematic replication)으로서 실험에 사용한 자극과 절차가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결과들을 사회적 정보처리에 관한 Wyer 와 Srull(1984)의 이론적 체계와 보다 완전하게 관련시키기 위해서는 지시조건을 인상형성조건과 기억조건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했다. 이전의 대인기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지시를 두가지(인상형성, 기억)로 하여 각각의 지시에 따른 정보처리방식이 다름을 입증했다(예: Srull, 1981, 1984). 그러므로 무시된 정보가 판단과 기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시를 두 조건으로 해야만이 이전의 대인기억 연구결과들과 통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 실험의 결과에서 나타난 논의될 문제중의 하나는, 표적인물의 호감도 판단에 관한 예언이 지지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인상형성조건의 피험자들이 기억조건의 피험자들 보다 표적인물을 더 나쁘게 평정할 것으로 기대했으나(이 실험에서는 무시된 정보가 부정적인 정보들임) 결과는 두 조건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인상형성조건에서는, 전반무시조건과 후반무시조건간에 호감도 평정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한 적합한 이유를 현재는 알 길이 없다. 앞으로 더 탐색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은 기억과 호감도 판단이 독립적이란 가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

이다. 이 가설은 아직은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옳다면 본 실험에서도 판단과 회상에 대한 모든 예언이 지지받아야 한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결과는 그 가설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했다. 판단과 기억이 독립적으로 저장된다면 이는 분명히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른 것이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무시하라”는 지시를 사용한 Wyer와 Unverzagt의 연구(1985)도 이런 문제를 다루는 흥미 있는 접근방법 중 하나이다. 이런 방법이외에는 여러 측면으로 “판단-기억간의 연결”에 관한 연구들이 가능할 것이다.

실 험 2

실험 2는 실험 1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음의 4가지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실험 1에서 지지받지 못한 결과를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실험 1에서 무시된 정보의 회상은 인상형성조건에서는 전반무시조건이 후반 무시조건보다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를 더 잘 회상할 것으로 예언했었다(예언 5). 자료분석 결과 인상형성조건에서 전반무시조건($M=1.73$)이 후반무시조건($M=1.07$)보다 무시된 정보를 더 잘 회상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F=3.21$, $df=1/56$, $p<.10$). 대신에 언어적 재료의 회상연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최근효과가 기억지시조건에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실험 2에서는 다른 실험 자극을 사용하여 실험 1의 예언을 다시 검증하고자 한다.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의 회상량 측정에서 실험 1과 실험 2가 다른 점은 실험 1에서는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시한 모든 정보를 회상하도록 하여 피험자가 실제로 그 정보들을 기억망속에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무시된 정보가 각 조건에 따라 기억망속에 존재하는지를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무시된 정보의 회상을 독립적으로 알아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험 2에서는 회상과제에서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만을 회상하도록 했다.

둘째, 전반무시조건과 후반무시조건의 정보제시 순서변인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순서를 통제했다. 실험 1에서는 전반무시조건의 경우 정보제시 순서가 불친절 행동 - 중립 행동 - 정직한 행동의 순서였고 후반무시조건의 경우는 정직한 행동 - 중립 행동 - 불친절 행동의 순서였다. 두 조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불친절 행동”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전반무시조건은 중립 행동-정직한 행동의 순서가 되고 후반무시조건에서는 정직한 행동-중립 행동의 순서가 된다. 이러한 순서효과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실험 2에서는 무시된 정보(불친절 행동들) 이외의 정보들(친절한 행동들과 중립 행동들)을 무선적으로 섞어서 제시했다. 실험 2의 자극제시 순서는 조건별로 다음과 같다. 전반무시조건에서는 불친절한 행동들(5개) - “지금까지의 행동들은 무시하라”고 지시 - 친절한 행동(5개)와 중립적 행동들(5개)를 섞어서 제시했다. 후반무시조건에서는 친절한 행동들(5개)과 중립 행동들(5개)를 섞어서 제시 - 불친절한 행동들(5개) 제시 - “뒤에서 5개의 행동들은 무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므로 실험 2에서는 정보제시 순서에 대한 문제는 없어졌다.

세째, 실험 1에서 사용된 Wyer 와 Unverzagt(1985)의 실험재료중 특히 중립 행동이 평가적으로 중립적(평가치 0)이라 보기 힘든 것들이 있었다(예: 어린이 앞에서 나쁜 언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행동정보는 호감도 평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실험 2에서는 Srull 의 연구(1981)에서 사용된 행동기술문을 번안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했다.

네째, 실험 1과 가장 중요한 차이는 통제조건을 설정한 점이다. 실험 2에서는 무시된 정보가 위치(전반, 후반)에 따라 특성판단, 호감도 판단, 회상 등에 다른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상세히 알아 보기 위해서 비교집단으로서 통제조건을 설정했다. 통제조건은 무시된 정보(여기서는 불친절한 행동들)를 제시하지 않는 조건이다. 통제조건과 전반무시조건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무시된 정보가 판단에 미치는 효과와 무시된 정보가 기억속에 표상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만약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가 전반인 경우 나머지 정보들로서 또 다른 특성-행동군을 형성할 수 있다면, 이 조건은 무시해야 하는 정보가 없는 조건(통제조건)과 특성판단, 호감도 판단 등에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후반무시조건의 경우 무시된 정보가 실제로는 무시되지 않은 상태로 표적인물의 대인기억망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결과 특성판단에 영향을 준다면 후반무시조건은 전반무시조건이나 통제조건에 비해 표적인물을 덜 “친절”하게 평가할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주로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려 한다.

방법 및 절차

피험자 실험 2에 피험자는 경남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사범대학생 46명이었다.

재료 Srull(1981)이 사용한 행동기술문 36개를 번안하여 사용했다. 이중 12개는 “친절”을 기술하는 행동들(예: 차안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이고, 12 개는 “불친절”을 기술하는 행동들(예: 남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야단쳤다)이고, 12 개는 중립적 행동들(예: 주말에 테니스를 쳤다)이다. 피험자마다 3 개의 항목에서 각각 5 개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15 개의 행동기술킴을 실험재료로 사용했다. 단 통제조건은 중립적 행동들에서 5 개와 “친절” 행동들에서 5 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용했다.

절 차 절차는 실험 1 과 거의 동일하다. 다른 점은 모든 조건의 피험자들에게 인상형성 지시를 했다는 점이다. 물론 통제조건에서는 무시하라는 지시가 없다. 전반무시조건에서는 5 개의 “불친절” 정보를 들려 준 다음 그것들을 무시하라고 지시를 했고, 후반무시조건에서는 15 개의 모든 정보를 다 들려 준 다음 뒤에서 5 개의 행동들을 무시하도록 지시했다.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실험 1 과 마찬가지로 3 가지였다. 즉 실험 2 에서도 종속변인은 (1) 표적인물의 호감도 판단(매우 싫다-매우 좋다), (2) 친절성 판단(전혀 없다-매우 많다), 그리고 (3)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의 회상 등 3 가지였다. 종속변인의 측정절차상에서 실험 1 과 다른 점은 종속변인의 측정이 이뤄지기전에 3 분간 간섭과제가 주어졌다. 간섭과제는 500 에서 계속적으로 7 씩 빼는 단순 계산과제였다. 실험 2 에서 간섭과제를 사용한 이유는 실험 1 에서와 같이 언어적 정보의 기억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회상과제에서는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만을 회상하도록 했다.

결과 및 논의

실험 2 에 참석한 46 명중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를 전혀 회상하지 못한 4 명을 제외한 42 명의 결과가 자료처리에 사용되었다.

1. 특성판단에 미치는 효과

전반 무시조건, 후반무시조건, 통제조건간의 표적인물에 대한 특성판단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했다. 그 결과 표적인물의 특성판단이 조건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1.10, df=2/39, p<.01$). 예상했던 것과 같이 전반무시조건($M=4.14$)과 통제조건($M=3.72$)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0.88, n.s$). 또한 예상했던 것과 같이 두 조건은 모두 후반무시조건($M=1.29$)에 비해 표적인물을 “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각각 $t=6.0, p<.01$; $t=5.11, p<.01$). 각 조건별 특성판단 평균치와 각 조건간 평균치의 DMR(Duncan's Multiple Range) 검증을 한 결과가 <표 6>과 <표 7>에 나와 있다.

〈표 6〉 각 조건별 특성판단 평균치(괄호안은 표준편차)

실험 \ 조건	전 반	후 반	통 제	p
실험 1	0.53 * (1.77) n=15	2.0 (1.81) n=15	-	<.01
실험 2	4.14 (0.86) n=14	1.29 (1.73) n=14	3.72 (0.99) n=14	<.01

* 수치는 표적인물의 친절성을 전혀없다(-5)~매우 많다(+5)의 척도상에서 평정한 것임.

〈표 7〉 각 조건별 특성판단 평균치의 차이(DMR검증)

	전반무시	통제조건	후반무시
전반무시=4.14	-	0.42	2.58**
통제조건=3.72	-	-	2.43**
후반무시=1.29	-	-	

** $p < .01$.

위의 표에서 보듯, 실험 1과 2 모두에서 후반 무시조건이 전반 무시조건에 비해 표적인물을 친절한 것으로 평정했다. 본 실험들에서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가 모두 부정적인 정보들이었기 때문에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와 나머지 정보들간의 구분이 어려운 후반무시조건에서는 전반무시조건에 비해 표적인물을 덜 친절하다고 평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험 2에서 전반무시조건과 통제조건간에 친절성 판단에 차이가 없는 것은, 전반무시조건에서는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특성-행동군과 나머지 특성-행동군이 비교적 잘 구분되어 표적인물의 친절성 판단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된다.

2. 호감도 판단에 미치는 효과

무시된 정보가 표적인물의 호감도 판단에 미치는 효과는 전반무시조건과 후반무시조건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며 이들 두 조건은 모두 통제조건에 비해 표적인물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조건간 호감도 평정치를 비교를 했다. 각 조건별로 표적인물의 호감도 평정치를 분석한 결과 각 조건의 평균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 11.49, df = 2/39, p < .01$). 예상과는 달리 전반무시조건과 통제조건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이들 두 조건은 모두 후반무시조건에 비해 표적인물을 긍정적으로 평정했다. 각 조건별 호

감도 판단 평균치와 조건간 DMR 검증을 한 결과의 요약이 <표 8>과 <표 9>에 나와 있다.

<표 8> 각 조건별 호감도 판단 평균치(괄호안은 표준편차)

실험 \ 조건	전 반	후 반	통 제	p
실험 1	1.47* (1.46) n=15	-0.47 (2.20) n=15	-	<.01
실험 2	3.86 (1.03) n=14	1.07 (1.82) n=14	2.93 (1.73) n=14	<.01

*수치는 표적인물물 매우 싫은 사람(-5)~매우 좋은 사람(+5)의 척도상에서 평정한 것임.

<표 9> 실험 2의 각 조건별 호감도 판단 평균치의 차이(DMR 검증)

	전반무시	통제조건	후반무시
전반무시=3.86	-	0.93	2.79**
통제조건=2.93	-	-	1.86**
후반무시=1.07	-	-	-

** $p < .01$.

<표 9>에서 나타난 호감도 평정결과는 특성판단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고 이에 대한 논의는 종합논의 부분으로 미룬다.

3. 무시된 정보의 회상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는 달리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만을 회상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했다. 이들 5개의 정보중에서 전반무시조건($M=3.21$)이 후반

<표 10> 각 조건별 무시하라고 지시된 정보의 회상량 평균치(괄호안은 표준편차)

실험 \ 조건	전반무시	후반무시	p
실험 1	1.73 (1.28) n=15	1.07 (0.80) n=15	<.10
실험 2	3.21 (0.58) n=14	2.43 (0.85) n=14	<.05

무시조건($M=2.43$)에 비해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의 회상량이 더 많았다($F=6.38$, $df=1/26$, $p<.05$). 이 결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고 실험 1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을 실험 2에서 얻었다. 각 조건별 무시하라고 지시된 정보의 회상량 평균이 <표 10>에 나와 있다.

위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전반 무시조건에서는 피험자들이 무시하라고 지시된 정보와 나머지 정보의 2개 군으로 기억망을 형성하고, 후반무시조건에서는 둘간의 구분이 어렵게 된다. 이 때 특성이 행동정보들의 인출단서가 된다면 하나의 단서에 포함된 정보수가 많을 수록 개별정보의 인출확률은 줄어 들게 된다. 그 결과 전반무시조건의 피험자들이 후반무시조건의 피험자들 보다 무시하라고 지시한 정보의 회상이 용이하였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총 합 논 의

실험 1과 실험 2는 모두 무시된 정보가 기억속에서 어떻게 표상되고 그 결과로 특성판단과 호감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 1은 무시된 정보의 효과를 연상모형(Hastie, 1980)의 틀속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이뤄졌다. 실험 2는 실험 1의 결과를 반복하고 Wyer와 Unverzagt(1985)의 실험과 같이 통제조건을 설정하여 실험 1의 결과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뤄졌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는 달리 Srull(1981)의 자극을 사용하여 이뤄졌고, 그 결과도 실험 1과 거의 유사하여 무시된 정보가 위치에 따라 다른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상당히 일반화시킨 셈이 됐다. 두 실험 모두에서 무시된 정보가 전반인 경우는 나머지 정보들로서 새로운 대인 기억망(인상)을 형성할 수 있으나, 후반인 경우는 이미 무시된 정보도 전체 기억망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나머지 정보와 분리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듯 하다. 이는 다음의 두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는 무시된 정보의 위치에 따라 특정인물의 특성판단이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는 무시된 정보의 회상에 있어 전반무시조건이 후반무시조건에 비해 회상량이 많았다.

그러나 실험 1과 실험 2에서 무시된 정보의 위치에 따른 표적인물의 호감도 판단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실험 1의 인상형성조건에서 전반무시조건은 후반무시조건에 비해 표적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험 2에서는 전반무시조건이 후반무시조건에 비해 표적인물을 긍정적으로 평정했다. 이 결과는 인상형성과 대인기억연구에서 호감도 평정치와 정보의 기억과는 독립적이라는 많은 연구결과들(예: Anderson & Hubert, 1963; Hastie & Park,

1986)과는 달리 둘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인상(impression)과 기억(memory)이 독립적이란 사실은 주로 두가지 실험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는 인상형성에서는 초두효과(primacy effect)가 나타난다 - 즉 초기의 정보가 전체 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보의 기억에 있어서는 최근효과(recency effect)가 나타난다 - 즉 나중에 제시된 정보의 회상율이 높다. 이 결과로서 Anderson 과 Hubert (1963)는 "인상을 기억하는 것과 성격형용사와 같은 언어적 기억과는 별개이다"(p. 391)라고 결론지었다. 둘째, 대인기억연구에서 전체 인상과 불일치하는(주로 평가적 불일치) 정보가 일치하는 정보에 비해 비울적으로 더 많이 회상된다는 사실이다(예: Srull, 1981). 최근에는 후자의 증거로서 인상(판단)-기억간의 관계가 독립적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주로 피험자들이 회상한 정보중에서 긍정적(+) 정보 수와 부정적(-) 정보 수의 비율과 각 피험자의 표적인물에 대한 인상 평정치간의 상관계수가 매우 낮다는데 주목하고 있다(Hastie & Park, 1986 참조). 그러나 회상한 정보들중에서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의 수적 비율로서 인상 평정치와 상관을 구하는 방식은 개개 정보의 평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즉 회상한 정보 각각의 주관적 평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피험자로 하여금 자신이 회상한 정보들 각각에 평가치를 부여하게 하여 이들의 합(혹은 평균)과 인상 평정치간에 상관을 구하면 높은 상관이 나오게 될 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이전의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판단-기억간의 독립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피험자들에게 10개의 행동정보(5개는 긍정적, 5개는 부정적 행동)로서 표적인물의 인상을 형성하도록 한 후, 인상을 평정하고 제시된 정보를 회상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피험자 자신이 회상한 각각의 정보에 대한 주관적 평정치를 매우 나쁜 행동(-5) - 매우 좋은 행동(+5)의 11점 척도상에서 적어 넣도록 했다. 그 결과 인상 평정치와 회상한 정보의 평균 평정치간에 높은 상관($r=.58$)을 얻었다.

만약 대인기억연구에서 판단과 기억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기억에 근거한 판단(memory-based judgment)으로 확인된다면 실험 1과 2에서 나타난 호감도 결과의 해석은 용이하다. 그러나 아직은 대인기억연구에서 판단이 기억에 근거하여 이뤄진다는 확고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2의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인기억과 사회적 판단(social judgment)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시도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실험절차상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가 전반과 후반으로 제한되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무시해야 하는 정보의 위치가 정보들의 중간에 올 가능성이 많다. 적절한 절차가 고안된다면 이러한 처치가 이전의 결과들과는

다른 보다 흥미있는 결과들을 가져 올 것이고 실제 장면에 많은 의미를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 Anderson, N. H., & Hubert, S. (1963). Effects of concomitant verbal recall on order effects in personality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 379-391.
- Bargh, J. A., & Thein, R. D. (1985). Individual construct accessibility, person memory, and the recall-judgment link : The case of information overloa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129-1146.
- Carretta, T. R., & Moreland, R. L. (1983).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inadmissible evide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291-309.
- Hamilton, D. L., Katz, L. B., & Leire, V. D. (1980). 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rsonality impression : Organizational processes in first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050-1063.
- Hastie, R. (1980). Memory for information that conforms or contradicts a general impression. In R. Hastie et al, (Eds.), *Person memory : The cognitive basis of social perception*. Hillsdale, NJ : Erlbaum.
- Hastie, R., & Park, B. (1986). The relationship between memory and judgment depends on whether the judgment task is memory-based or on-line. *Psychological Review*, 93, 258-268.
- Hastie, R., Park, B., & Weber, R. (1984). Social memory. In R. S. Wyer & T. K. Srull(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Vol. 2, pp. 151-212). Hillsdale, NJ : Erlbaum.
- Srull, T. K. (1981). Person memory : Some tests of associative storage and retrieval model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Human Learning and Memory*, 7, 440-463.
- Srull, T. K. (1984). Methodological techniques for the study of person memory and social cognition. In R. S. Wyer & T. K. Srull(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Vol. 2), Hillsdale, NJ : Erlbaum.
- Srull, T. K., Lichtenstein, M., & Rothbart, M. (1985). Associative storage and retrieval processes in person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1, 316–345.
- Sue, S., Smith, R. E., & Caldwell, C. (1973). Effect of inadmissible evidence on the decisions of stimulated jurors: A moral dilemma.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 345–353.
- Tulving, E., & Pearstone, Z. (1966). Availability versus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in memory for word.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5, 381–391.
- Winter, L., & Uleman, J. S. (1984). When are social judgments made? Evidence for the spontaneousness of trait in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237–252.
- Wyer, R. S., & Gordon, S. E. (1982). The recall of information about persons and 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8, 128–164.
- Wyer, R. S., & Srull, T. K. (Eds.) (1984).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1–3. Hillsdale, NJ: Erlbaum.
- Wyer, R. S., Srull, T. K., & Gordon, S. E. (1984). The effects of predicting a person's behavior on subsequent trait judg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29–46.
- Wyer, R. S., & Unverzagt, W. H. (1985). Effects of instructions to disregard information on its subsequent recall and use in making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533–549.

ABSTRACT

Effects of Information Instructed to Disregard on Person Judgments : Explanations of the Association Model

Ko, Jae-Hong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 Nam University

The present experiments were aimed to see the effects of behavioral informations which instructed to disregard on subsequent person judgments. In two related experiments, subjects were given discriptions of a target person's behaviors. Subjects in memory set were instructed to memorize the given behavioral informations, subjects in impression formation set were instructed to form an impression of the person with these informations. After receiving the first set of behaviors, some subjects were told that an error had been made and that the behaviors should be disregarded. Other subjctets were told to disregarded the last behaviors presented. The effects of to-be-disregarded information on trait judgments, likableness, and its recall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ask set and position of to-be-disregarded information. In impression formation set, to-be-disregarded informations at the end of the series did more influence on specific trait judgment of the target person than did to-be-disregarded informations at the first of the series. But the result of its recall was opposite.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association model of person memory (Wyer & Srull, 1984)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omory and judgment.